보건소 금연클리닉 성공요인 분석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1. 시범사업 운영 결과

금연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4주 금연성공에는 연령, 사회보장, 직업, 1일 평균 흡연량, 음주문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한편, 6개월 금연성공에는 연령, 직업, 1일 평균 흡연량, 음주문제 여부, 총상담회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4주 및 6개월 금연성공 요인에는 차이가 없었다.

4주 금연성공의 결정요인 중 연령에 따른 성공률은 39세 미만의 집단보다 40~64세인 집단이 1.815배, 65세 이상의 집단 3.686배 높아 연령이 높을수록 4주 금연성공률이 높았다. 사회보장의 종류에 따른 4주 금연 성공률은 의료급여수급자에 비해 건강보험가입자가 2.438배 높았으며, 직업에 따른 4주 금연 성공률은 무직 및 기타에 비해 학생이 4.114배, 사무직이 1.630배 높았다. 1일 평균 흡연량에 따른 4주 금연 성공률은 흡연량이 증가할수록 성공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주문제에 따른 4주 금연 성공률은 음주문제가 있는 경우에 비해 없는 경우가 1.615배 높았다.

6개월 금연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연령에 따른 성공률은 39세 미만의 집단보다 40~64세인 집단이 1.701배, 65세 이상의 집단 2.530배 높아 연령이 높을수록 6개월 금연성공률이 높았다. 직업에 따른 6개월 금연성공률은 무직 및 기타에 비해 학생이 2.940배 높았으며, 음주문제에 따른 6개월 금연 성공률은 음주문제가 있는 경우에 비해 없는 경우가 2.254배 높았다. 또한 상담회수에 따라서는 상담회수가 증가할수록 6개월 금연 성공률이 높았다.

2. 신규 등록자와 재등록자의 금연 성공요인

신규등록자의 6개월 금연성공 요인에는 성별, 연령, 총 상담회수, 하루 평균 흡연량, 흡연기간, 음주문제, 과거 금연시도 유무 등 선정된 모든 변수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재등록자의 경우는 연령, 사회보장, 총 상담회수, 재등록 회수, 하루 평균 흡연량, 음주문제 등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신규등록자와 재등록자의 금연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적인 요인은 연령, 사회보장, 총 상담회수, 하루 평균 흡연량, 음주문제 등 이었다. 또한 서비스 내용은 신규등록자에 있어 행동요법, 약물요법, 행동+약물 모두 금연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신규등록자와 재등록자 모두 남자가 여자보다 성공률이 높았다. 연령은 재등록자는 신규등록자와 비교하여 연령이 높을수록 성공률이 더 높았다. 사회보장은 신규등록자가 재등록자보다 건강보험의 성공률이 의료급여보다 높았다. 총 상담회수는 신규등록자와 재등록자 모두 상담회수가 많을수록 금연 성공률이 높았다. 특히, 재등록자는 신규등록자보다 상담회수에 대한 성공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재등록자의 평균 재등록회수는 1.44회로 재등록 회수가 많을수록 성공률이 낮았다. 하루 평균 흡연량은 신규등록자와 재등록자 모두 흡연량이 많을수록 성공률이 낮았다. 음주문제는 신규등록자와 재등록자 모두 음주문제가 없는 경우가 음주문제가 있는 경우 보다 금연 성공률이 높았다. 특히, 재등록자의 경우 신규등록자보다 음주문제가 없는 경우의 성공률이 높았다, 서비스 내용은 신규등록자의 경우 '행동+약물'요법이 행동요법 보다 금연성공률이 높았다.

3. 도농별 금연 성공요인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 동안 4주 및 6개월 금연성공률은 도시가 농촌보다 높았다. 4주 금연성공율의 경우 도시는 2005년 75.7%, 2006년 77.5%, 2007년 81.0%였으며, 농촌은 2005년 71.2%, 2006년 72.1%, 2007년 76.4%였다. 한편, 6개월 금연성공률의 경우 도시는 2005년 38.1%, 2006년 43.8%, 2007년 48.2%였으며, 농촌은 2005년 32.0%, 2006년 36.2%, 2007년 40.2%였다. 4주 및 6개월의 금연성공 요인은 도농 간의 큰 차이는 없었다.